

# 외국 국적 사령탑 9명 중 유일하게 16강 진출

## 절체절명의 순간 한 방... 클래스가 영원한 이유



심재희의 골라민

손흥민, 부상 탓 조별리그 부진했지만 포르투갈전 막판 기적 역전골 어시스트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3일(한국 시각) 포르투갈을 꺾고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짓는 순간 손흥민(30·토트넘 홉스퍼)이 역습 기회를 맞았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웰시전과 번리전에서 보여줬던 폭풍질주가 떠올랐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스피드로 포르투갈 수비진에 잡히고 말았다. 그대로 찬스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다. 중앙 해도하던 황희찬(26·울버햄턴 원더러스)에게 공이 연결됐고, 황희찬이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 한방으로 벤투호는 '도하의 기적'을 쓰며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 후 '올보' 손흥민은 또다시 평평 울었다. 그리고 가나와 우루과이의 경기가 끝나고 벤투호가 16강행을 확정 짓자 더 깊은 눈물을 쏟아냈다. 자신이 짊어진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정상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마음대로 경기가 안 풀렸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기적적인 성과를 이뤘기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술적히 이번 대회 들어 손흥민은 기대에 못 미쳤다. 안와골절 부상 후유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무엇보다 특유의 스피드를 살리지 못했다. 우루과이전과 가나전에서 그가 기록한 유효슈팅은 '제로'였다. 포르투갈과 경기에서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손흥민답지' 못했다. 포르투갈 수비수들의 협력 수비에 고전했다. 측면으로 자주 몰려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지 못했고, 1-1 돌파도 자주 막았다. 세트 피스 공격에서 킥도 정확하지 않았다. 스피드, 정확도, 경기 장악력 모두 부상 전과 비교하면 정상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기회가 월드컵 클래스를 증명했다. 스피드로 상대 수비진을 제압하기 어려웠지만 환상적인 패스로 황희찬의 골을 도왔다. 수비수 3명을 자신에게 붙인 뒤 다리 사이로 절묘한 패스를 넣어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현재 컨디션에서 가능한 최고의 장면을 만들었다.

축구팬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부상 후 기적적인 회복력으로 복귀한 손흥민의 폼이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몸이 무거워져 공격력이 크게 하락했지만 벤투호가 치른 3경기에 모두 나서 플라임을 소화한 캡틴 손흥민. 최악의 컨디션과 주위의 비판 속에서도 손흥민의 월드컵 클래스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스포츠전문기자 kkanonni@sportbiz.co.kr

## 주목받는 벤투 감독 이력

스페인의 산체스가 이끈 카타르 등 나머지 8개 팀들 조별리그 진출이 탈락 선수·사령탑으로서 모두 본선 경험도佛 대상은 선수·사령탑 모두 우승



앞선 가나전에서 레드 카드를 받은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3일(한국 시각) 관중석에서 포르투갈전을 지켜보고 있다.

파울루 벤투(53)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선 사령탑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참가한 32개 나라 중 자국이 아닌 외국 국적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곳은 9곳이다.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만 유일하게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벨릭스 산체스(47·스페인) 감독이 이끈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해 구스타보 알파로(60·아르헨티나) 감독의 에라도르, 헤라르도 마르티노(60·아르헨티나) 감독의 멕시코, 존 허드먼(47·잉글랜드) 감독의 캐나다, 로베르토 마르티네스(49·스페인) 감독의 벨기에, 에르베 르나르(54·프랑스) 감독의 사우디아라비아, 카를로스 케이로스(69·포르투갈) 감독의 이란, 루이스 페르난도 수아레스(63·콜롬비아) 감독의 코스타리카는 모두 조별리그를 끝으로 짐을 싸들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조별리그 H조에서 2위를 차지했다. 우루과이와 비기고, 포르투갈을 잡으며 1승 1무 1패 승점 4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6일 오전 4시(이하 한국 시각) 카타르 도하의 스타디움 974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대회 16강전을 벌인다.

FIFA가 개막 전 홈페이지에 소개한 자료를 보면, 선수와 사령탑으로 모두 월드컵 무대를 밟

은 감독은 이번 대회 총 10명이다. 벤투도 속한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대표팀 미드필더로 활약한 그는 2014년엔 조국을 지휘하며 브라질 월드컵에 나섰다. 감독으로서 이번 2번째로 경험하는 월드컵이다. 벤투 감독은 3년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조국 포르투갈을 2-1로 꺾고 한국의 사상 2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이자, 통산 3번째 16강 진출을 일궈냈다. 그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상대로 다시 한번 역사를 쓰려 한다.

디에 데상(54) 프랑스 대표팀 감독을 비롯해 루이스 엔리케(52) 스페인 감독, 드라간 스토이코비치(57) 세르비아 감독, 리베르토 송(46) 카메룬 감독, 리오넬 스칼로니(44) 아르헨티나 감독, 게리스 사우스게이트(52) 잉글랜드 감독, 알리우 시세(46) 세네갈 감독, 그레고 베랄타(49) 미국 감독, 오토 아도(47) 가나 감독도 선수와 사령탑으로 월드컵을 경험한 감독들이다.

선수과 감독으로 모두 우승을 차지한 사령탑은 데상뿐이다. 그는 1998년 자국 프랑스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주장 겸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 아트 사커의 우승에 기여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선 프랑스 지휘봉을 잡고 정상에 우뚝 섰다.

박종민 기자 min@sportbiz.co.kr

## 최상의 컨디션을 위한 골프 스트레칭!

# Golf Stretching 100

### <골프스트레칭100> 프리미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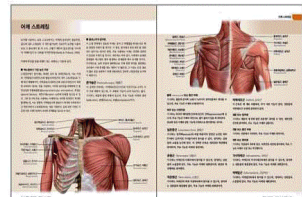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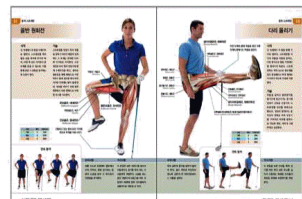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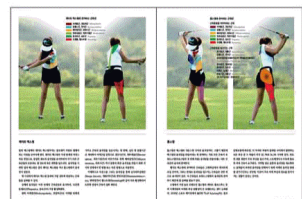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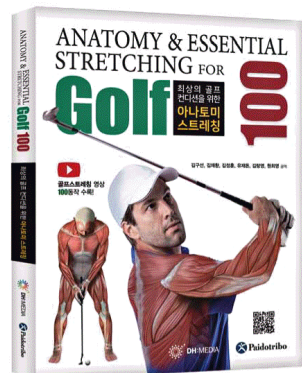
- 골프스트레칭 동영상 100동작
- 몸통, 상하체 등 신체 부위별 체계적 스트레칭
- 최고 강사의 스트레칭 및 스윙 영상
- 최상의 신체 능력 유지

강력하고 유연한 스윙,  
섬세한 퍼팅,  
부상 예방

- 저자 Guillermo Seijas
- 역자 김재환, 김구선, 김정호, 유재돈, 김량영, 원희영
- 판형 210x275mm
- 소프트양장 156쪽
- 정가 25,000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축구대표팀 황희찬이 3일(한국 시각) 에두에이에서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3차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역전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 태극전사 사상 첫 두 경기 연속 멀티골

### 포르투갈전서 쏟아진 기록들

대표팀 37경기 38골... 경기당 1골 넘어서 손흥민 통산 공격포인트 4개로 공동 1위

포르투갈전 극적인 역전골로 카타르 월드컵 16강에 진출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태극전사들이 여러 가지 새로운 기록을 썼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3일(이하 한국 시각)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두에이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최종 3차전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이날 전반 초반 선제골을 내준 대표팀은 김영권의 동점골과 경기 종료 직전 황희찬의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1승 1무 1패 승점 4를 따르며 우루과이와 다득점(한국 4, 우루과이 2)에서 앞서며 조 2위로 16강 진출에 성공했다.

상 최초 기록을 만들었다. 또한, 월드컵 경기당 평균 득점 1을 넘어섰다. 한국은 이번 대회 전까지 34경기 34골로 정확히 평균 득점 1을 기록하고 있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에서 4득점을 만들며 37경기 38골을 기록하게 됐다.

어려 가지 개인 기록도 나왔다. 포르투갈전에서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월드컵 공격포인트 4개로 한국 선수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전까지는 최순호가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 1골 2도움, 1990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1도움을 기록해 통산 1골 3도움으로 최다 공격포인트 1위를 지키고 있었다.

김영권은 한국 선수 월드컵 최고령 득점 2위에 랭크됐다. 1990년 2월 27일생인 그는 32세 278일 제에 골을 터뜨렸다. 최고령 득점 1위는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황선홍의 33세 325일이다.

극적인 역전골로 영웅이 된 황희찬은 월드컵에서 교체 선수로 득점 기록한 두 번째 한국 선수가 됐다. 앞서 2006 독일 월드컵 토고전에서 안철환이 역전골을 넣은 이후 16년 만에 교체 선수 득점을 작성했다. 그는 포르투갈전 후반전 교체 투입 후 26분 만에 득점하며 최단 시간 결승골 기록도 세웠다.

이수현 기자 jwdr95@sportbiz.co.kr